

擇里志의 경관론적 고찰 : 卜居總論 「山水」¹⁾를 중심으로

鄭 基 浩

成均館大學校 造景學科

A Study on the 'Landscape' of Taek-li-ji

Jung, Ki-Ho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ung Kyun Kwan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is a preliminary study to interpret method of landscape evaluation of " Taek-li-ji ", an old Book of Settlements in Korea, of which concept would be based on 'li' and 'qi': 'substance of the earth'(地理) and 'its transform'(生利) as well as 'substance of human being and its transformed human mind'(人心). The 'Landscape'(山水) of Taek-li-ji, character of case study, might be built on practical landscape sources.

Concept and theoretical basis of evaluation of Taek-li-ji, mentioned in this paper, and the second intention of Taek-li-ji, which is done in my previous work, can be earned good result, for an interpretation method of rural landscape of Taek-li-ji, and will be proposed continued case studies about real landscapes of the settlements of the 'Landscape' in Taek-li-ji.

I. 서 론

“택리지의 文意的 考察”(정기호, 1990)로부터, 택리지에는 드러나지 않는 二次의 意圖가 배경에 깔려 있음을 살필 수 있고, 따라서 그에 적합한 제한 또는 전제없이 특정한 전문분야의 관점에서 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택리지를 전체적 흐름에서 파악하고 그

로써 李重煥의 意中을 생각해 본 것은, 이중환 자신이 八道の 山水를 관찰하고 분석 해석한 것으로서 그 자신이 山水를 어떠한 모습으로 인식 하였으며 그것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가칭 경관인식 평가론²⁾에 적용되는 좋은 예가 될 것이란 것 때문이다.

본고는 택리지 전반에 걸친 구성상의 해석에 의하여 살핀바 있는 前稿(정기호, 1990)의 내용과

1) 山水와 「山水」: 山水는 경관에 해당하는 옛말의 의미로써 사용하였고, 「山水」는 복거총론의 「山水」條를 칭하는 것으로 사용함. 이하 「」표는 택리지의 각 條의 명칭을 뜻함.

2) 본고에서는 순수히 택리지의 서지적 검토를 통한 체계적 해석을 그 내용적 범위로 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고에서 사용한 경관론 및 경관인식평가 등의 용어는 山水를 논하고 山水를 통한 인식과 평가라는 정도의 범위로 한정됨. 이는 앞으로의 경관론적 원용의 모색을 위한 기초적 연구의 성격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임.

관련한 세부항목에 관한 고찰이 되며, 내용적 범위로는 복거총론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검토를 해보려는 것으로, 복거총론을 구성하고 있는 「地理」 「生利」 「人心」 그리고 「山水」 등의 各論의 내용을 경관론의 입장에서 살피고 그로써 택리지의 경관평가의 체계를 살피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복거총론 서술의 논리체계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복거총론의 전반적인 내용을 택리지의 문 의적 맥락으로 정리하여 “머물러 오래 살만한 땅의 고찰”에 관한 내용을 개괄하고, 살만한 땅에 대한 경관평가적 기준의 설정에 해당하는 특징과 경관평가에 관련된 논리체계를 검토함으로써 「산수」를 「지리」 「생리」 「인심」과 내용적 상관성으로써 설명하였다. 복거총론 「산수」의 해석에서는 택리지 전체의 맥락으로 보아 복거총론 「산수」의 내용이 지닌 역할의 규명을 피하여 택리지 전반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복거총론의 성격과 각 條의 논리체계를 검토하였다. 본고의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특히 「산수」에서 거론된 각 可居地의 예들은 매우 實事의인 내용으로써 다루어졌을 것임을 미루어 살펴볼 수 있고, 따라서 본고에 이은 계속 연구에서는 「산수」의 이같은 내용을 가거지별 실제 경관의 검토로써 다루어 질 필요성이 크게 대두될 것임을 제안해 보았다.

1. 卜居總論의 개괄

택리지는 실제적인 것(현실, 현상)으로써 실제가 아닌 것(理想)을 의도한 것이지만, 그 중 복거총론은 특히 실제적인 것을 실제 그 자체로써 다루어 간 것에 해당된다. 말하자면, 「地理」는 땅의 전반적인 ‘理致’를 여섯가지의 주요개념을 통하여, 쉬 파악할 수 있는 현상적인 것으로 해석하여 설정된 개념이고, 그에 대한 실질적 생활의 도구로써 「生利」를 거론하여 실학적인 實事求是의 논점을 이루고 있다. 즉 「지리」는, 대지의 형

상으로부터 대지의 이치라는 추상적인 면을 취해야 할 극히 어려운 문제를 여섯요소에 의해 구조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결국은 「生利」에 관한 구체적 검토 및 기타의 事案들을 또한 두루 살필 수 있게 된 것이다.” 복거총론을 통하여 다루고 있는 내용은 눈에 띄지 않게 어떤 전제사항을 설정해둔 상황에서 고려되고 있다. 즉 「산수」에서, 名山과 名刹이 들어선 곳 그리고 한양의 삼각산 등의 수려한 山과, 강을 따라 석벽과 반석이 많은 절경의 곳들을 들었으나, 이러한 곳들은 “한때 구경할 만한 경치가 있어 다만 절이나 道觀자리로서는 합당하거나, 영구히 대를 이어 살곳으로 만들기에는 좋지 못함이 필연이다.” (이익성, 1981:248) 라고 전제한 후, “野邑이라도...”라고 하는 서술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그 점인 것이다. 야읍으로는, 江가의 곳으로 嶺에서 멀지 않은 강가의 마을, 嶺을 떠난 들판에 앉은 마을로써 분류하여 각각 논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그의 견해는 곧 야읍에 대한 복거의 평가기준의 원칙을 언급한 내용이라 할 것이다.

“야읍이라도 시내와 산, 강과 산의 경치가 있어, 혹 넓으면서 명랑하고, 혹 깨끗하면서 아늑하며, 혹 산이 높지 않아도 수려하고, 혹 물이 크지 않으면서 맑으며, 기이한 바위와 돌이 있어, 음침하거나 험악한 모습은 전혀없는, 이런 곳이라야 영묘한 기운이 모인 곳이다. 이러한 곳은 푼이 있으면 유명한 城이 되고, 시골에 있으면 이름난 마을이 된다.” (이익성, 1981; 249)

그에 의하여 강가의 마을과 시내에 면한 마을들이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다:

— 강가의 마을: 강가의 마을은 일반적으로 농사 짓는 이로움을 겸한 곳이 드물고 한갓 강과 산의 경치만 있을 뿐, 衣食을 얻는 리함은 적다고 하였고, 평양의성, 춘천우두촌, 여주읍 등 들판이 펼쳐있기 때문에 훌륭하다는 곳과 부여에서 은진이나 임피까지의 물가의 마을 그리고 한양의 여러 강마을 등을 제외한 기타의 곳은 경치의 훌륭함

3) 「인심」은 각 지방의 마을 인심에 관한 것이 아니라, 특히 당쟁과 관련된 人間事에 관한 논의를 다룬 것이어서, 복거총론의 전체 흐름에서 특이한 내용이 되고 있다. 前稿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극히 의도적인 것의 결과임을 살핀바 있다. (정기호, 1990:53)

에 비해 좁고 궁벽하거나 위치한 곳이 너무 먼 단점들을 지닌다고 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

— 시내에 면한 마을: 바다는 바람이 많아서 낮이 검기 쉽고 여러 병이 많으며, 강은 산골에서 나와서 유유히 한가한 모양이 없고 거꾸로 말려들고 급하게 쏟아지는 형세여서 강에 임한 정자는 지세의 변동이 많아 흉하고 스러짐이 일정하지 않음에 비해, 시내가의 마을은 평온한 아름다움과 시원스러운 운치가 있고 관개와 경농하는 리함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嶺에서 멀리 떨어져지지 않은 시내를 낀 마을로 도산, 하회, 임하천, 청송, 영천(영주) 등을 들고, 嶺을 떠나 들판에 내려앉은 마을로 공주갑천, 청주작천, 선산갑천, 구례구만 등을 들어서 살만한 곳으로 꼽고 있다.

도산, 하회 등 제일로 삼은 마을을 비롯하여 황강 상류는 사대부가 살만한 곳으로 꼽았고, 嶺을 떠난 들판의 네 곳을(그중 특히 구례구만을 지칭하여), 지세나 생리는 도산이나 하회보다 좋으나 嶺과의 거리가 멀어서 난리를 피하기에 좋지 못하다 하여, 결국은 하회 도산 등을 가장 훌륭한 것으로 꼽았다.

즉 이중환의 주안점은 머물러 오래동안 살만한 땅의 고찰이었고 그리하여 북거총론의 검토는 「산수」에 거론된 곳들을 「지리」, 「생리」, 「인심」과 관계된 평가기준에 입각하여 살펴야 하는 것이다. 「지리」 「생리」 「인심」 「산수」 등 각 條別 제 사항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地理」는 특히 택리지의 풍수와 관련지어지는 요인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여기서의 풍수적 용어 및 개념으로 수용되어온 「지리」를 논함에서 중요한 여섯가지, 水口, 들, 山, 흙빛, 물길, 그리고 朝山—朝水 등은 땅의 이치라는 형이상학적 추상적 대상을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형상으로써 파악할 수 있게한 해석의 수단이었던 것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즉 水口가 닫힌

듯하고 그 안에 들이 펼쳐지며 沙土로써 굳고 촉촉한 땅과 함께 수려하고 단정하며 청명하고 아담한 모습의 주산, 그리고 물이 있어야 하며 특히 산에는 물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마치 물과 짝을 이루으로써 생성의 묘를 지남과 같고, 물 너머의 물과 산너머의 산으로써 조산조수의 단정하고 맑은 모습의 산과 길고 멀게 흘러드는 물 등의 것으로 표준을 삼고 있다.⁴⁾

「生利」는 四禮를 갖춘 생활을 위한 요인이며 「지리」가 이제 더 이상 추상적 대상이 아닌 여섯가지의 요소로써 갖추어진 실체로서 등장할 수 있게 됨으로써 「生利」는 곧 땅과 물로부터 취할 수 있는 리의 요건이 되며 따라서 「生利」는 「地理」와 함께 (자연조건에 관한) 相補의 두 要因이 된다. 즉 「生利」로는 땅이 기름진 곳을 으뜸으로하여, 배와 수레와 사람과 물자가 모여들어 있는 곳 그리고 물자를 서로 바꿀 수 있는 곳으로써 기준을 삼았다. 그러나 마치 「地理」가 표준으로 삼은 모습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경관을 그려낸 것이라기 보다는 사뭇 표준적인 원칙과 같은 성격인 것과 같이, 「生利」에서 논한 제 사항들도 결코 큰 富를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파악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써 생기는 이득을 받아서 관혼상제의 四禮에 드는 비용을 보탠다는 등, 사대부로서 갖추어야 할 禮의 이행을 위한 기본요건과 그 실현에 관한 표준을 주요 요지로 삼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북거총론에서 「지리」 「생리」의 내용과 같은 흐름으로써의 기대될 수 있을 「人心」의 내용은, 각 지방의 특징적인 성격이나 풍속 등에 관한 것이어야 바람직 하리라고 보인다. 그러나 실제 「인심」에서 거론된 것은 사회비평의 논조가 되어 있음으로써 북거총론에 걸맞은 서술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인심」은 마을 인심이 좋아야 할 것이라 擇里의 조건에서 비롯하여 서술되고 있지만, 특히 사대부 계층에서의 여러 문제가 심각히 거론되고, 그로부터 현실적으로 택

4) 택리지의 내용 중 특히 이 부분을 두고 풍수이론과의 관련성을 논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 관한 본고의 입장은前述한 바와 함께 정기호(1990)의 53면을 참조. 논의의 쟁점은 풍수적 국면의 서술의 원용인가 아니면 그것이 전통적 산수에 대한 思惟方式的 특징이었는가 하는 점에 있을 것이나, 이에 관한 논의는 따로이 정립될 성격의 것이라 사료됨.

리 할만한 곳은 나라안 어디에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으로 해서, 「人心」條는 북거총론의 전체 흐름과는 잘 맞지 않는다.

卜居를 논함에 있어서 「인심」이 특이한 내용으로써 다루어진 본 뜻은 북거총론에 관한 내용의 흐름 상으로 보더라도 쉬 드러나지 않는 점이다. 이것을 통하여 그가 의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점도 택리지 전체에 흐르는 모순적 서술의 한 예가 되지만 (정기호, 1990; 54의 註16), 「인심」은 人間事에 관한 정당한 요인으로써 “忠臣이 節義를 세우는 고장”(이익성, 1979: 204)이라는 사대부로서 지녀야 할 禮道의 기준에서 살핀 평가의 결과에 해당되는 것이라 보면, 그 내용상의 부정적이고 이질적인 점은 풀려 나가게 되어, 擇里를 위한 제 고찰은 「지리」 「생리」 「인심」의 총체적인 체계 속에서 가능해 진다.

「山水」는 이같은 택리를 위한 원론적인 틀에 의해서 實地에 대한 사례연구의 성격을 보인다. 즉 「산수」에서는 특별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단지 산수가 좋은 곳은 생리가 박한 것이 보통이라거나, 그리하여 산수가 좋은 곳을 부근에 두고 자리를 정할 것을 일러 주는 정도로 하고 있다. 바로 그것은 「산수」 자체가 앞서의 「지리」 「생리」 「인심」에서 논한 것을 토대로하여 택리를 위한 사례론과 같이 논하고 있음에 연유하는 것이다.⁵⁾

2. 평가에 개재된 특수요인: '삶의 터'에 관한 택리지의 경관평가기준

택리지의 북거총론은 「地理」와 「生利」 그리고 「人心」을 통하여 '自然과 人間の 相關性'이란 관점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파악될 수 있다. 즉 「지

리」와 「생리」는 인간이 擇居하기 위한 조건에 부합시킨 자연조건에 관한 두 상보적 요인 - 理와 氣의 상보적 역할에 의한 현상 - 으로서 살핀 것이며, 그에 따라, 이 자연의 어느 곳에 나의 몸을 담을 것인가, 라는 명제를 놓고 「人心」을 통하여 現實을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로 보인 현실의 문제는 곧 사람(四民)과 관계된 문제 - 當쟁과 관련한 문제 - 었으며, 그 때문에 좋은 「지리」와 「생리」를 갖춘 곳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어디에도 살만한 곳은 없는 것이 그 현실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극복하려 함에서 언급되었던 부분이 곧 易의 原理를 통하여 '萬物은 변한다'는 관점이었으며, 이 점은 바로 自然과 人間事를 관조한 그의 山水觀과 관련된다. 그 산수관은 구체적으로 「산수」를 논한 체계와 그것에 숨겨진 文意로써 표출되고 있다. 이 점에 관한 고찰을 북거총론에서 보이는 경관평가론적인 내용의 분석 (평가에 개재된 특수한 요인과 경관 평가의 특징)으로써 설명해 보기로 한다.

북거총론의 「산수」는 앞서 살핀 바와같이 「지리」 「생리」 「인심」의 내용으로써 평가의 기준을 삼은 것과 관련하여 삶의 터에 대한 평가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산수」에서 거론되고 있는 '삶의 터'에 대한 내용으로부터 택리지의 취하는 평가기준의 세부사항을 정리하면 크게 세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바,

- 1) 산수를 두고 (다분히 「지리」의 관점에서), 山의 평가를 주축으로 물은 산에 의해 종속되는 관계로써 파악한 점,
- 2) 평시와 난시의 경우를 동시에 두고 (다분히 「인심」의 관점에서) 본 것으로, 이 경우에는 특히 亂時에 피할 곳을 크게 염두에 두고 산가까이의 마을을 중요하게 판단한 점
- 3) 그리고, 「생리」에 있어서의 땅이 기름져 농사

5) 尤菴의 견해(理氣形三件事說)(유남상, 1991: 1545)에 비추어 보아, 「地理」(理), 「生利」(氣), 「山水」(形)에 해당하는 논리의 체계를 볼 수 있을 것임. 氣의 국한성이 천지만물의 구체적인 형상으로 나타남으로써 현실적인 사물적 존재의 형체가 성립된다고 본 것이며 이러한 주자와 율곡의 이기설의 계승과 함께 그들에 의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 것이 곧 理氣形三件事說이다. 氣는 理를 저장해 가지고 운행하는 器에 해당하면서 人物의 형상을 성립시키는 것이며 氣即器란 氣가 理를 저장한다는 뜻에서 理의 器를 의미함이지, 직접 만물의 형상을 가리키는 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理氣는 현상적 존재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形은 理氣를 내용으로 한 형상 그 자체로서 이해되는 것임.

의 利를 얻는 것을 비롯하여, 운송과 교통 관계를 힘주어 논하는데, 이 경우에는 특히 水運의 경우에 비중을 둔 점.

이러한 세가지의 판단의 관점은 결국 택리지를 통한 경관의 평가에 개재된 특수한 요인에 해당되며 우리는 이러한 특수한 사항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즉 산수의 「지리」적 판단은, 山을 중심으로 하여 그에 대응하는 요소인 水를 동반시켜 소위 山水對應⁶⁾의 개념을 보인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산이며, 山은 水와 더불어 조화될 수 있는 조건을 지녀야하며 그 조건은 명산의 조건이 아니라 소박한 모습의 것이어야 할 것임이 내포되어 있다.(정기호, 1990; 54의 註18) 평시와 함께 난시의 경우를 함께 다루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난시의 경우를 크게 비중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할 점으로 생각되며, 이에따라 택리의 좋은 조건으로 산에 비중이 두어지고 있다. 끝으로, 水運에 해당하는 것의 배경은 극히 실학자적인 관점의 발로이며 이를 두고 표면적으로는 그의 세심한 경제에 관한 안목으로부터 나온 사항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오히려 山과 水의 대응관계와 관련하여 水는 山의 「理」的 적용(현상화)에 대한 「氣」的 적용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들 특수한 평가기준의 내용은 실제 경관평가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가 하는 것이 이들에 대한 위와같은 해석에 못지않은 경관론의 입장에서의 중요한 사항이 된다.

3. 경관평가의 특징

일반적으로 평가의 기준이 되는 사항은 인간본연의 기분(감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知的인 사항과 결부되어 있게 마련이다.⁷⁾ 즉 우리가 배워오고 체험해온 경험치가 이루는 어떤 善惡이나 好不好의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것은 동시대적인 개인의 경험차에서, 또는 시대가 다른 상황에서 오는 시대적인 특수성이 개재된다. 이중환의 경우, 택리지에 서술된 것은 이중환 자신이 팔도의 산수를 관찰하고 그것을 ‘삶의 땅’이라는 주제로써 분석 해석한 것이며, 이로써 택리지는 경관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평가가 어떠하였는가 하는 경관인식 평가론에 적용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복거총론의 「지리」, 「생리」, 「인심」 등의 내용은 경관의 판단을 위한 가장 본질적인 개념(理: 「地理」)의 실제활성화를 위한 개념의 설정과, 그에 상보적인 관계를 지닌 사항(氣: 理가 현상적으로 활동되어 나타난 결과: 「生利」)의 설정, 그리고 인간사으로써 나타날 현실상의 요인(心即氣: 「人心」)⁸⁾의 설정과 같은, 경관의 개념에 의한 산수를 풀어보는 원론적인 개념 및 상황설정 성격의 지닌다.

산수에 대한 이중환의 신념은 다음과 같은 그 자신의 소견으로부터 살펴볼 수 있다: “대저 산수는 정신을 즐겁게하고 감정을 화창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수가 좋은 곳은 생리가 박한

6) 山水對應이라 함은 山水調和와는 약간 다른 뉘앙스로써 사용해 본 것임. 즉 「산수」의 내용 상에서 이 조화는 산수의 동등조건이 아니라 주종적 조건으로써 서술된 것으로 보임.

7) 사실상 인식과 평가는 동시에 일어난다. 즉 어떤 대상이나 광경을 보고 그에대해 어떤 의견을 편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아!”라는 감탄과 같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우리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인식이며 평가작용인가를 구분할 수 없다. 그에대해, 바라보이는 대상이나 상황을 이모저모 따져서 先은 이렇고 後는 이러이러하니 결국은 어떠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인식된 상황과 평가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8) 우암이 理氣形三件物事說(본고 註5 참조)으로써 객관적 사물의 우주론적 원리를 내면화시켜 심성적 존재이해에도 그대로 적용한 그의 심성론을 보면, 무위의 도체인 性即理와의 관계에 한정된 것에서 우암은 心을 氣로 규정하여 心即氣라고 하였다: “인심은 지각기능을 가지며 道體인 인간본성은 작위가 없으니 性은 곧 무위자연한 것으로서... 情과 意 양자는 모두 心의 發用인즉...” (유남상, 1991: 156-7). 택리지 복거총론의체계가 이같은 논리를 적용한 것인지의 여부는 확인 할 수 없으나, 본고에서 파악된 서술체계와의 맥락을 (일반적으로 성리학적 논리체계가 그러했듯이) 그렇게 설명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 사료됨.

곳이 많다. 그러므로 기름진 땅과 넓은 들에, 지세가 아름다운 곳을 가려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십리밖, 혹은 반나절쯤 되는 거리에 경치가 아름다운 산수가 있어 매양 생각날때마다 그곳에 가서 시름을 풀고 혹은 유숙한 다음 돌아올 수 있는 곳을 장만해 둔다면 이것은 자손 대대로 이어갈 만한 방법이다. 후세의 사람으로서 산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것을 본으로 할 것이다.”(이익성, 1979 : 262)

본고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 즉 경관론을 구성하는 이론적 체계—인식과 평가—와 관련하여, 사대부가 살만한 곳에 대한 경관평가에 개재된 이중환의 방식의 특징을 우선 한양의 경우를 대표적 예로써 찾아 보기로 하다.

「지리」「생리」「인심」에 해당하는 한양에 대한 각 서술을 살펴보면, “강과 바다의 조수와 白岳으로써 온 나라 산수의 정기가 모인 곳, 명성과 문화의 중심으로써 儒風과 學者가 배출된 곳, 그리고 龍山湖 등 한강의 화물 수송과 강마을로 큰 강을 끼고 길 하나의 전략적 지세를 지닌 그런 훌륭한 곳”(이익성, 1979 : 145, 172, 175)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에 비해 「산수」에 해당하는 내용은 좀 다르다. 즉 수려한 들로 된 봉우리의 산과 강이나 바다가 모이는 곳의 팔도의 네곳의 하나로써 한양의 三角山을 논한 것(이익성, 1979 : 229)이 위의 「지리」「인심」「생리」의 것과 상충되거나 혹은 그 기준이 애매한 가운데 그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을 든다.

우선 좋은 점으로서 남산 아래의 판국 자체와 그 판국 안에 깨끗하다는 것에 비하여 좋지 않은 점은 삼각산에 옆산과 골이 없고 白岳 仁旺의 강한 인상 그리고 水口의 虛함 등 모두 산과 관계

된 것이어서 결국은 판국의 좋은 점과 산의 나쁜 점으로써 오히려 지나치게 일목요연한 점이 보인다.⁹⁾

「산수」를 단순히 자연경관에 국한된 것으로 그리고 「지리」「인심」「생리」 등과같이 복거총론의 한 요소로 볼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산수」는 「지리」「인심」「생리」를 총괄한 사례연구적 총체적 경관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양의 경우 「지리」「인심」「생리」로써 판단되는 각각은 총체적으로는 「산수」에서 논한바와 같이 긍정과 부정의 면이 매우 뚜렷하며 그리하여 일견 상징적으로 암시되고 있는듯이 보인다.

여기서, 택리지가 설정한 경관해석과 그 평가에 대한 기준은 어떤 방법으로써 살피고 정리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점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복거총론을 통하여 저자는, 왜 「지리」「생리」「인심」「산수」를 논하는가, 라는 말로써 각 條의 서두를 띄우고, 「지리」「생리」「인심」에 대하여 그 각각의 논하는 기준을 서술하고 있다. 그 결과를 총괄할때, 각각의 논거는 땅의 이치적 해석, 땅으로부터의 제한의 추구, 人間事에 관한 궁리 등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 조건에 기준을 두게되어 이를 「산수」로써 총괄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해서 우리는 특히 택리지의 「산수」를 인용하여 논함에 있어서는 이같은 점과 함께, 그 기준을 한양과 같은 특정한 곳의 경관을 통해 어떻게 가시화하며 그 해당되는 모습을 어떻게 정리해 보아야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¹⁰⁾

9) 일견, 판국과 산수의 좋고 나쁨의 명백한 구분으로부터 그 해석은 매우 의도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로써 언급된 것은 아닌가. 예를 들어 산수로써 상징되는 상류층과 판국으로 대변되는 民草와 같은 것. 이는, 「人心」에서 보여주듯 사대부 계층의 병폐에 관한 서술과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10) “강, 바다의 조수와 백악으로써 온 나라 산수의 정기가 모인 곳”이라는 「지리」적 표현에 비해 “백악은 인왕과 함께 그 바위가 너무 강하다”거나, “관악이 너무 가까움”과 같은 「산수」적 표현 등에서 특히 상징적이거나 암시적인 분위기를 살필 수 있다. 택리지에서 경관을 살핀 기준은 오늘날의 자연과학의 관점과는 달리 다분히 환경지각적인 측면에서 (최창조, 1984 및 Yoon, 1971) 그리고 경관의 物象으로부터 유류적 해석—예를들어, 붉은 콩과 검은 콩의 효능을 그 각각의 성분해석으로써가 아닌 색깔에 의한 물상들의 상관성(예로써 음양에 의한 오행적 상관성)으로써 파악한 것 등—을 이론 점이 다분함.

4. 卜居總論 「山水」의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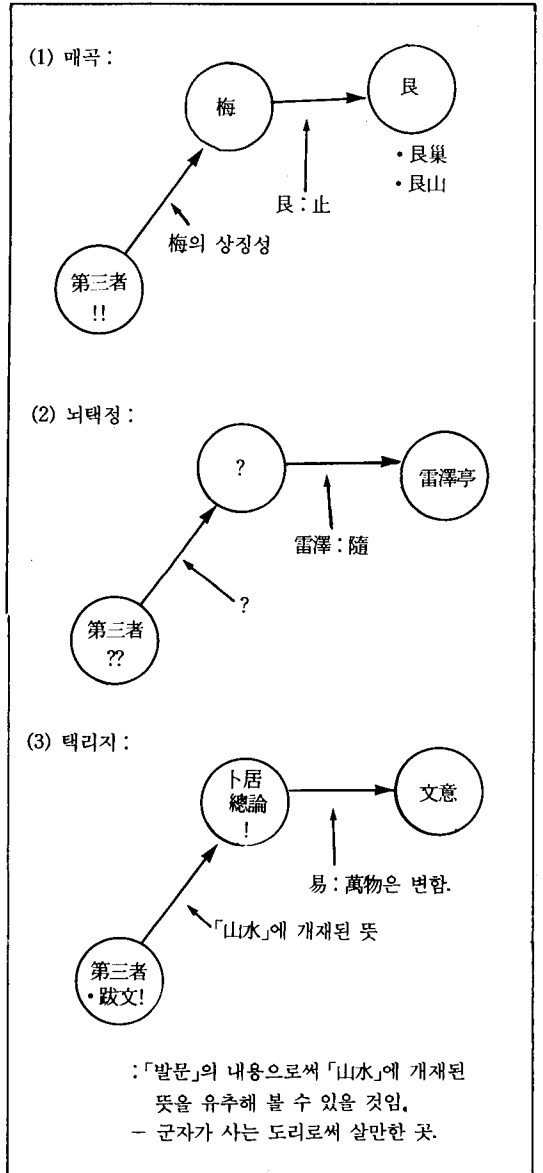
택리지의 기본 “자연과 인간의 상관성”은 만물은 변한다는 易의 원리에 입각한 이상향으로써 자연과 인간사를 관조한 그의 산수관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易의 이상향 구현을 위한 교량적 역할은 전통경관구성의 예들로부터 쉬 살펴볼 수 있다.

梅谷마을의 중요한 경관요소로는 종가와 그 뒷산을 꼽을 수 있고, 이들 각각은 艮巢 및 艮山이라고 명명되어 있다. 梅谷의 공간구성에서 易의 의미를 艮卦로써 살펴볼 때, 艮의 卦象은 止를 뜻하고, 그로써 艮山이나 艮巢의 의미가 「止」로써 표출되는 심상의 표출임을 알 수 있게 된다. 그 당사자 梅山이 梅谷과 함께 그토록 梅에 집착한 것은 우리가 梅로부터 받는 그 상징적 의미로써 감지하게 되므로해서 결국 우리는 梅와 艮의 상징매체 및 상징언어으로써 梅谷의 공간을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이다. (Jung, 1988 및 정기호, 1992 : 393-5)

그에 비하여 정자에 관한 아무런 정보를 알지 못할 경우, 그에 관한 아무런 해석을 해 볼 수 없게 된다. 예를들어 영해지방의 雷澤亭은 그 유지에 세워진 안내팻말로 부터 그곳이 뇌택정이라는 이름의 정자의 유지임을 알게된다. 주역의 卦象으로부터 雷澤은 “隋”를 뜻함을 알게되어 정자의 이름이 함축하고 있을 어떤 뜻을 살필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해당되는 인물과 그의 사상을 모르면 그 이상의 어떤 뜻이나 공간구성의 총체적 의미도 어찌 도출해 볼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뜻과 형상, 즉 心象과 形象이 서로 구체적으로 상관되기 위해서는 중간매체가 필요하게 됨을 알 수 있다.¹¹⁾

택리지의 기본 사상을 이러한 관계에서 심상의 형상화라는 개념에서 풀어 볼 수 있고, 그 一次的인 과정은 易을 매개하여 펼쳐짐을 알 수 있다. 다시 二次의 고찰에서의 이차적 媒介素는 곧

「지리」 「인심」 「생리」 「산수」 등 복거총론에서 다루어 지고있는 일련의 내용과 관계된 것에 있을 것이다.



〈그림 1〉 심상적 표현과 상징매체

11) 뇌택정 유지는 경북 영해 부근의 오촌 마을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본인은 몇해전 그 곳을 지나가다가 안내팻말을 통하여 그곳이 뇌택정의 유지임을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 수 리 떨어진 한 마을의 주민으로부터 그 정자가 이 마을의 한 인물과 관계된 것임을 살필 수 있을 뿐 제한된 시간 동안에는 다른 아무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이 경우 우리는 이 정자를 통한 조영자의 뜻을 전혀 살필 수 없는 것임.

택리지가 뜻한 바를 第三者의 입장에서 표명된 내용, 즉 택리지의 拔文들을 통하여 유추해 본다:

弗過軒은, “살만한 곳을 가리려하나 살만한 곳이 없음을 한탄한 것이지만, 그(이중환)의 뜻이 어찌 여기에 있었을 것인가”(이익성, 1979: 227)라고 하였고, 陸會敬은 “肉身을 편하게 (외형적) 하는 것과 마음에 즐거움을 찾는 것(내면적)이 있거니와 君子가 사는 道理로써 산다면 어디인들 살만한 곳이 아니겠는가”(이익성, 1979: 281)라고 하였다. 丁茶山이 언급한 바와같이, 그 자신이 고향 소천 땅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익성, 1979: 284)에 대한 이유들은 위의 여러 발문들이 표명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과 일맥상통해 지는 것이며, 그 뜻은 택리지가 표명하고자 하였던 이차적 매개소에 의한 것과 다름이 없을 것으로 본다. 즉 ‘실제의 것’으로써 찾아본 일차적 과정에서 보여진 궁극적 이상의 표명에는, 일차적 媒介素로서의 易思想이 깊이 개재되어 있다. 즉 ‘萬物은 변한다 - 極에 달하면 原來로 돌아 오는 것’과 같은 易의 논리는 四民의 始源에서와 같은 ‘땅 아닌 땅’의 표명을 가능하게 해준 매개요소였던 것이다.¹²⁾

위의 발문에 의한 유추로써 살펴보려는 내용은 결국 택리지의 二次的 文意過程에서 드러날 내용과 상관될 수 있다. 鄭彥儒의 「序」를 통하여 살펴보면, “숨어 살려는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살 터를 잡으려 함이 필연적인 것이며, 屈原이 「漁夫辭」로써 자신의 뜻을 나타냄”(이익성, 1979: 14-15)과 같이 이중환은 택리지를써 자신의 뜻을 실은 것이 된다. 즉 숨어 산다는 것은 혼탁한 세상을 떠나는 것이지만 그것이 도피적인 것이 아닌 것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굴원의 행위와도 같

은 심오한 뜻을 담은 노릇일 것이란 점이다. 이러한 이차적 과정에서 나타내 보이려던 그의 뜻은 구체적으로는 「산수」에서 나타난다.

1) 「山水」의 구성

「산수」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의 성격으로 분류된다:

- a. 우리나라 산수의 개략
- b. 산수의 지형적 특성
- c. 八道の 산수와 인물의 행적
- d. “대저 산수는 정신을 즐겁게 하고...”

ab는 각각 항목별로 관계된 내용과 함께 說話 내지는 故事가 곁들여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그 중 c는 「산수」의 중심된 내용을 갖추고 있다. d는 산수에 대한 그 자신의 총체적 소견에 해당된다. 이 항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a: 산수의 대략과, 백두산에서 제주도까지의 지리적 현황이 서술되었으며 제주도에 이어 硫球國이 언급되면서 유구국의 王子와 濟州牧士의 갈등관계의 이야기가 서술된다.
- b: 산수의 지형적 특성에 이어 대보단에 관한 이야기와 아울러 임진왜란때의 이여송 등 중국인 내명에 관한 내용이 거론된다. 이 내용은 ‘忠臣의 節義 - 報恩的 節義’로써 압축될 수 있다.
- c: 팔도 곳곳의 산수가 서술되면서 특정한 장소나 마을과 관련된 인간의 행적이 함께 서술되고 있다. 서술된 산수 요소를 정리해 보면,
 - 금강산에서부터 소백산에 이르는 산맥의 흐름: 삶의 터가 되지 않으므로 인간의 행적과 관계된 내용은 없다.

12) 易의 원리를 통하여 심상이 형상화된 것은 具象物로서의 어떤 대상을 지칭할 수 있는 류의 것이 아니라 택리지를 통하여 의도한 저자의 뜻(文意)이 복거총론의 내용으로써 추출되어 나타남을 말함. 요약하여 정리하자면, 「지리」 「생리」 등 山水의 範疇에서의 可居地 조건을 갖춘 곳이라 하더라도 「인심」에서 다루어진 現世의 人間事에 관련된 병폐로 인하여 살만한 땅이 없다는 표면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易의 原理에 입각하여 極에 달하면 原來로 돌아 오는 것이라는 논리전개를 통하여, 복거총론에서 다룬 산수적 내용은 四民에 관련한 병폐가 없는 어느 時點을 염두에 둬으로써 가능해 지는 이상론인 것이다. 總論에서 언급한 “땅 아닌 땅”(이익성, 1979: 273)이라는 명제는 이러한 배경에 의하여 서술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의 구체적 내용은 “택리지의 문외적 고찰”(정기호, 1990)의 P56 작업가설 (3)을 중심으로 참고바람.

- 속리산 지리산 가야산 청량산 등 산맥의 흐름에서 들판 가까이에 솟아난 산에서는 특히 선유동 화양동 및 각 산 주변의 사찰이 설명되면서, 명산은 숨어사는 무리들의 수양처가 되어 절이 많음을 말하고, 부석사 통도사 동화사 등이 거론되어 있다.
 - 들판에 내려 앉은 산, 명승, 섬, 경승지, 영풍 등지의 동네, 川 들이 사람의 삶과 관련된 내용으로써 서술되고 있으며, 嶺을 떠나 들판에 내려앉은 시냇가 마을들은 수없이 많음을 말하면서 도산 하회 등을 제일로 꼽았다.
- d. 산수는 정신을 즐겁게 하는 것임을 밝히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 듯 결론을 맺고 있다.
- 이상의 각 항목별 구성 내용을 일별해 보면,
- 산수와 의 관계에서 사람의 행적과 그 흔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 그러한 서술자료로써, 자연과 더불어 예도로써 행하는 선비로서의 행실 등을 삶을 행하는 중요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2) 「山水」의 매체적 역할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복거총론은 바로 사대부의 예도로써 행하여야 할 삶이 가능할 터를 훑어본 것이며, 이미 전술한 바와같이 「지리」 「생리」 「인심」의 각 내용은 可居地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원칙론적 내용이며 이들을 기준삼아 판단되는 可居地의 가치를 「산수」에서 구체적 사례로써 서술한 것이 된다. 즉 「산수」로써 살핀 바는 형이하학적 자연의 물상으로써 「지리」 「인심」 「생리」에 대한 지역별 사례연구의 총괄된 결과인 것이다.

이제, 「산수」의 매체적 역할을, 한양을 그 한 예로써 구체화하여 설명해 볼 수 있다. 한양에서 다른 「산수」는 「지리」 「생리」 「인심」 등의 實事的 매체를 통하여 표명하고자한 내용을 경관요소를 빌어 구체적으로 (방편적으로) 표상화시킨 것임이 드러난다. 즉 온 나라 산수의 정기가 모인 곳에 (「지리」), 큰 강과 전략적 지세를 지니며 용

산호, 화물수송, 강마을 (「생리」) 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명성과 문화의 중심, 유풍, 학자 (「인심」) 를 지니고 있다는 한양에 대한 평가의 결과는 웅결한 기상이 없는 것이 유감이라 하더라도 南山 아래의 판국이 좋고 판국 안이 매우 깨끗하다 (「산수」)라고 표명한 그의 소견으로 나타난다. 수려한 산과 강 또는 조수가 모이는 곳으로 뛰어난 네곳 중의 하나로 꼽히는 한양 三角山이지만, 옆산이 없고 골이 적으며 水口가 낮고 虛하며 白岳과 仁旺은 殺氣를 띤다는 등과 같은 단점에 해당되는 제 내용은 남산 아래의 깨끗한 판국이라는 부분과는 매우 의미심장한 대조를 보인다.

궁극적으로 한양의 땅을 논한 것은 그 실제적 지세의 특징을 설명하려는 데에 있었던 것이라기 보다는, 그 실제적 지세의 특징을 빌어 자신의 소견을 상징적으로 표명해 본 것에 있었던 것이다. 한양의 경우로써 살핀 바와 같이 「산수」의 내용은 결국 자신의 표명하고자 한 뜻을 위한 매체적 역할에 중요한 핵심이 있는 것이었다.

「山水」에서 표명된 내용을 몇가지로 정리해 보면,

- 山水를 인물과 관련하여 서술함으로써 이 나라는 '충신이 절의를 세우는 곳'임을 표방하였고,
- 이 점은 숨어 살고자 하는 뜻(「序」)을 지닌 사람이 살만한 땅을 찾아, 행실을 닦고 예도로써 생활할 터전을 살피고 논한 것과 상관되어 있다.
- 「산수」로써 보이려한 제 자료의 근저에는 '예도로써 수행할 제반 여건'이란 實事的인 내용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 이러한 체계를, 「지리」 및 「생리」 「인심」을 각각 理氣에 의한 삶과 관련된 주제 의 변용으로써 관계시켜 볼 때, 「生利」를 취하며 山水에 묻히는 것, 「人心」이 담긴 山水, 「地理」를 갖춘 곳이 곧 山水가 있는 곳이라는 내용으로 전개되어 가는 것이다.

「산수」는 택리지 (세부적으로는 복거총론)의 구성체계상 그 문의적 맥락에서 중요한 매체적 역할을 한 부분이 된다. 본고의 목적과 관련하여,

택리지의 경관평가체계를 오늘날 원용해 보기 위한 실마리는 「산수」의 이러한 중요한 역할과 아울러 그 서술된 사례별 내용이 매우 실사적인(실증적인) 것을 토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잡히게 된다. 바로 그 점을 한양의 예에서 익히 살펴본 바가 있다.

Ⅲ. 결 론

택리지의 文意的 考察 (정기호, 1990)에 이어, 본고에서 취하려는 복거총론의 「산수」를 중심으로한 고찰의 결과, 「산수」의 역할과 의미를 복거총론의 「지리」「생리」「인심」 등 각편의 체계와의 관계에서 요약할 수 있었고, 「산수」에 관한 제 자료는 禮道로써 수행할 수 있는 삶을 위한 제반 여건이라는 實事的 範疇에서 그 기준을 삼았을 것임이 고찰 되었다고 생각된다.

택리지에 관한 前稿와 本稿로써 살핀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四民의 構造的 分離가 極에 달해 있음으로써 땅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살만한 곳’이 없지만, 易에 의거하여 생각해 보면 極에 달하면 다시 原點으로 돌아가게 마련이어서 四民의 분리에 의한 病弊가 없다면 팔도의 어디에도 살만한 곳이 있다.
- 2) 이러한 전제하에 팔도의 살만한 곳을 살핀다면, 무엇보다 「지리」「생리」「인심」으로써 理-氣에 관한 조목별로 따져볼 일이다. 「산수」는 곧 이 조목들이 질서정연히 전개되어 이루어진 形에 관한 것이며 그로써 이중환은 자신의 소견(뜻)을 표명한 것이다.

살만한 곳을 찾는 것은, 숨어 살고자 하는 뜻에서 행실을 닦고 예도로써 행할 생활의 기

반이 될 곳을 가려보는 것을 말한다. 바로 이러한 제반 사항은 實事로써 취급되어야 하며, 그러한 實事로써 이루어 가야 할 그 뜻은 예도로써 표명한 삶(‘충신이 절의를 세우는 곳’에서의 사대부로서의 행실)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택리지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한양의 「지리」를 파악한 것은, 우선 광역적 차원에서의 분석과 그에 따라 주요부에 내린 세부적 해석 - 이러한 차원에서 각각 地圖에 의한 자연조건의 형세판단 그리고 각 부분의 세부경관을 고찰함으로써, 택리지에서 논의된 그 기준을 현상적으로 가시화해 볼 수 있게 된다. 이는 택리지에 서술된 다른 여러 지역의 검토에서 동일하게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택리지 내의 경관평가가 지니는 판단의 眞否와는 無關하게, 자연의 형상 즉 지리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우리의 경관해석과 무관하지 않다.

참 고 문 헌

1. 이익성 역(1979) 「택리지」, 율유문화사.
2. 유남상 (1992) “尤庵의 心性理氣論과 義理思想에 관한 연구”, 斯文學會 「우암사상연구 논총」, 149-169.
3. 정기호 (1990) “택리지의 문리적 고찰”, 「한국조경학회지」 17(3), 49-57.
4. _____ (1992) “경복궁의 공간계획에 있어서 축과 향에 관한 연구”, 「성대논문집(과학기술편)」 42(2), 389-396.
5. 최창조 (1984)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6. Jung, Ki-Ho (1988) *Bezüge des Menschen zu Haus, Dorf und Landschaft*, Dissertation, Universität Hannover.